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65호 【루계 제25208호】 주체105(2016)년 3월 5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3월 5일은 우리 나라 농촌문제해결의 새 기원이 열린 의의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토지개혁법령을 작성발표하신것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정치적사변이였다.

토지개혁이 실시됨으로써 수천년 내려오던 봉건적토지소유제도가 영원히 청산되고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지으려던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실현되게 되였으며 농촌경리발전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였다. 토지개혁은 새 조선건설을 위한 민주화과업수행의 첫걸음이였으며 동방인민들의 해방투쟁을 힘있게 떠민 고무적기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오던 우리 농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땅을 분여받고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밭갈이와 씨뿌리기에 떨쳐나서던 해방후의 첫봄을 우리는 정녕 잊을수 없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한 총공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토지개혁법령발포기념일을 맞이한 우리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지금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고무해주신다는것을 명심하고 더욱 분발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의 새로운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여야 합니다.》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년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농촌건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밑에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세기적변혁이 이룩된 긍지높은 력사이다.

농촌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기본문제의 하나이며 그것을 옳게 해결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떠나 주체적혁명력량의 강화와 나라의 경제적자립, 민족의 자주적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농촌문제해결은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농촌문제해결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였기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두 단계의 심각한 사회혁명이 철저히 수행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은 복잡한 국제정세의 파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과학적영농방법인 주체농법의 창시와 위력한 대중지도사상, 대중령도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창조,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수립을 비롯하여 우리 식 농촌건설의 로정우에 새겨진 력사적사변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문제해결을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증시하는 력사적과제로 내세우시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농촌진지를 더욱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심화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대규모의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일신시키도록 하시고 농업혁명방침을 제시하시여 농업생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휘황한 미래를 펼쳐주신것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공적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농민문제, 농업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가장 빛나게 해결하여온 위인, 한평생 온 나라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며 농촌건설을 전두에서 이끌어온 수령은 세상에 없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여 황금벌의 새 력사를 펼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수놓아온것은 우리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의 더없는 영광이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주체의 농촌건설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농업부문에 대한 령도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 사회주의주타격전방으로 정해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농업생산에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고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은 우리 조국력사에서 최음으로 마련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도 깃들어있고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천지개벽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도 새겨져있으며 농촌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농기계전시장에도 어리여있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지난 70년간의 장구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심장깊이 새기였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눈부신 비약을 이룩하여온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력사적진군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길을 따라 꿋꿋이 나아가는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절감하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은 위대한 사상리론에 의하여 창도되는 불패의 위업이다.

우리에게는 변천하는 시대적환경속에서도, 류례없는 시련과 도전속에서도 농촌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일찌기 빛나는 선견지명으로 우리 농촌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을데 대한 사상, 종자혁명방침과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방침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신 사상리론들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을 사소한 우여곡절이나 편향도 없이 줄기차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혁명적이며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들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신것은 새로운 주체100년대 농업부문의 비약적발전을 떠미는 고무적힘으로 되고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에 선차적힘을 넣을데 대한 사상과 분조관리제안에서 로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할데 대한 사상,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들에 의하여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것이 오늘의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은 강력한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토대와 잠재력에 의하여 추동되는 앙양한 위업이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한히 헌신하는 참다운 혁명가들로 자라난것은 지난 70년간의 력사적투쟁속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혁명하는 길에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피어린 혁명의 전취물인 땅의 귀중함을 뼈에 새기였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였으며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과감히 맞받아 뚫고나가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체질화하게 되였다.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제재와 불리한 자연기후속에서도 농업전선이 활력있게 전진하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성과 불타는 애국심, 전투적위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지고 농기구 하나 변변한것이 없던 우리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오늘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실현되고 기계화, 화학화가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도처에 대규모의 과일생산기지, 축산기지들이 일떠서 커다란 은을 내고있다. 온 나라에 양어와 온실농사, 버섯재배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농촌마을들이 살기 좋고 문명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고있다. 농업전선의 병기창인 농기계 및 부속품생산기지들과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져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로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하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고있는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농업부문의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진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원쑤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광명한 미래에로 노도쳐나아가는 우리의 힘찬 진군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올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이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이 세계만방에 떨쳐질 2016년에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려 당 제7차대회정신을 보위하고 우리 혁명의 10년, 20년, 30년 미래를 담보할뿐아니라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지금 온 나라에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례없는 알곡생산성과로 당의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만풍년의 농악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가 세차게 맥동치고있다.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은 우리 혁명의 교과서이며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는 여기에 주체의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환히 꿰들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근본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첫자리에 놓고 자기 단위 사업을 전개해나가며 미진된것이 없는가,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 잘해나갈것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해나감으로써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 수령의 유훈을 어떻게 받들어나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령도업적단위들이 기수, 본보기가 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수행의 직접적담당자는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에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확고한 신념과 억세찬 투지를 가지고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여야 한다. 농업전선에서 통장훈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는 비상히 빨라지게 된다. 농업근로자들은 농장포전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잇닿아있는 혁명초소로, 한알한알의 낟알을 포탄 한발, 총탄 한발로 여기고 조국의 대지에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황금벌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의것에 대한 애착과 긍지,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으로 분여받은 땅에서 알곡증산투쟁을 벌리던 그 열정, 적기들의 명록적속에서도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자!》라는 구호를 들고 전시식량생산을 보장하던 그 정신이 온 나라에 세차게 나래쳐야 한다. 누구나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고 후손만대에 물려줄 귀중한 재부인 땅을 소중히 다루고 기름지게 걸구기 위하여 투신하는 참된 애국농민이 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자기앞에 맡겨진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올해에 대풍작을 마련할수 있도록 자급비료생산과 물확보사업, 관개시설건설과 보수 등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은 나라의 농업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농업부문의 일군들은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농사를 과학화하여야 살길이 열린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 농사에서 막히는것이 없는 과학기술인재가 되기 위하여 피타게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보급실천영을 정상화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공화국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가 당이 펼친 설계도따라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오자면 결정적으로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한다. 오늘날 농사는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전인민적인 결사전이라고 할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것이 미룰수도 드팀수도 없는 사활적인 투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농사일에 발벗고나서야 한다. 농업부문에서 비료는 탄약과 같고 농기계는 무장장비와 같다. 해당 단위들에서 비료와 농기계부속품을 비롯한 영농물자들을 제때에 무조건 생산보장하고 전당적, 전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을 모든 면에서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농사철에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농촌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농촌당조직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은 주체의 사상론을 틀어쥐고 화선식선전선동을 드세차게 벌려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견결한 계급의식을 지닌 진짜배기혁명가들로 키워야 한다. 누구나 만풍년의 가을을 그려보며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정치사상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당원들이 당중앙위원회 편지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대중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불씨, 만점을 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선봉투사가 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농업부문의 모든 청년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먼 후날에도 오늘을 긍지높이 추억할수 있게 70일전투기록장에 위훈의 자욱을 새겨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사회주의농촌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실현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유엔안보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에 단호한 대응조치로 맞서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변인 성명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의 완전성공에 기절초풍한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3월 3일 새벽 드디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악랄한 대조선《제재결의》 제2270호를 조작해내였다.

《결의》가 채택되자마자 미국의 오바마는 《환영메세지》라는것을 발표하고 국무장관 케리를 내세워 《지지성명》을 공표하게 하였으며 잇달아 어중이떠중이들은 멋없이 그에 맞장구를 치고있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의 효과성을 떠들어대면서 우리 군대와 정부의 핵심일군들을 《특별제재》대상으로 지명한 《독자제재》까지 덧붙여 발표하였다.

일본도 덩달아 아베의 《지지론평》과 기시다외상의 《지지담화》를 내보내였다.

지어 남조선의 박근혜패당까지 한밤중에 《성명》이라는것을 내고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니, 《단호한 메세지》니 뭐니 하고 고아대고있다.

새해를 맞으며 세계를 진감시킨 우리의 수소탄위성과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에 질겁한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57일간이나 숙덕공론을 벌린 끝에 조작해낸 이번 《제재결의》는 이미 예견된것으로서 별로 놀랄것도 새로운것도 아니다.

문제로 되는것은 이번 《제재결의》가 당치않은 구실로 자주적이며 정의로운 주권국가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가장 로골적이며 가장 극악한 국제적범죄행위라는데 있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가중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핵억제력확보조치이며 우리의 위성발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행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모결탁하여 우리의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전면도전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조작해낸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립장을 세계앞에 천명한다.

첫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악랄한 대조선 《제재결의》를 존엄높은 자주독립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극악한 도발로 락인하고 단호히 배격한다.

이번 대조선《제재결의》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헤버리고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장단에 놀아나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작해낸 범죄적인 문건이다.

원래 우리는 공화국에 대한 유엔의 모든 《제재결의》들을 단 한번도 인정해본적이 없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로골적으로 짓밟는 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르게 될것이다.

우리의 대응에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물리적대응을 포함한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총동원될것이다.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유린당하는것을 뻔히 보면서 수수방관할 우리가 아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 유엔《제재결의》에 가담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셋째,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저지른 이번 특대형국제범죄를 계기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제정치질서를 결정적으로 깨버리기 위한 범세계적인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갈것이다.

정의와 공정성이 유린되고 이중기준과 부정의가 판을 치는 세계의 흐름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자대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이 제멋대로 재단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우리 공화국은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앞으로도 병진로선의 기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며 위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해 이미 선택한 길을 따라 과감히 전진할것이다.

세계는 유엔《제재결의》를 천백배의 대응조치로 맞받아나가는 우리 공화국이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에 추종해나선 얼간망둥이들의 독판치기로 전락된 유엔의 피많은 력사를 어떻게 끝장내고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어떻게 바로잡아나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3월 4일

평 양

절세위인들께서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력사 대대손손 빛내여가자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발포 70돐에 즈음하여

수령님 주신 땅이여, 무궁토록 젊어지고 아름다와지라

사회주의대지에 봄의 교향곡이 울려가 70일전투성과소식들이 장엄하게 울려퍼진다.

봄, 이 땅의 소중함을 그 얼마나 뜨겁게 안아보게 하는 우리 조국의 봄인가.

한겨울의 추위가 사라지고 따뜻한 봄의 훈향이 불어오는 이 계절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 하였다.

허나 땅을 가꾸는 이 나라 농업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봄은 단순한 자연의 계절이 아니라 자기들의 운명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 새생의 봄, 명들었던 가슴마다에 뜨거운 사랑과 삶의 희열을 안겨준 위대한 탄생을 돌이켜보게 하는 계절이다.

3월 5일,

수수천년 오랜 세월 착취와 수난에 짓눌려 허리를 펼수 없었던 이 나라 농민들이 난생처음 자기 땅에 행복의 봄씨앗을 뿌리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70돐기의 년륜을 아로새기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70년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래 얼마나 놀라운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졌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해방된 이 땅에 처음으로 찾아온 봄은 참으로 환희로왔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믿을래야 믿을수 없고 너무도 놀라운 사실앞에서 감격에 울고웃으며 《김일성장군 만세!》, 《토지개혁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우리 수령님 주신 땅에 얼굴을 부비며 목메이던 농민들, 분여받은 제땅에서 밤이 지새도록 며날쌀을 돌았던 이 나라 농민들의 모습이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선히 안겨온다.

정말 꿈같은 일이였다.

온 가족이 멍석을 걸고 한매기의 돌서덜밭을 손끝이 닳도록 피땀으로 일구고 눈물로 가꾸어왔어도 차례진 것은 가난의 설움과 고통뿐이던 지난날이였다.

그 세월 무정한 하늘에 빌어도 보았건만 제땅을 가지고싶어했던 이 나라 농민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땅의 한 시인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찾아온 봄에 울분을 터치였다.

우리 인민처럼 땅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인민은 세상에 없다.

그들에게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에 대한 숙망을 풀어주신분은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우리의 추억은 못 잊을 해방의 그 기슭으로 파도쳐간다.

항일전의 나날 유격근거지의 농민들에게 땅을 분여해주시여 민주주의적토지개혁실시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토지개혁을 민주개혁의 첫시작으로 하실 결심을 품으시고 농촌길을 수없이 걸고걸으시였다.

서해기슭의 외진마을과 대동군의 말머리, 이름없는 농촌의 주녀낮은 초가집에서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과정에 나라의 전반적농촌실태와 농민들의 요구를 다 잘 료해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복잡하게 얽혀져있는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 나라 농촌실정에 맞는 토지개혁의 원칙과 방도들을 확정하시였으며 몸소 토지개혁법령을 한조항한조항 완성해나가시였다.

주체35(1946)년 3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토지개혁법령의 발포,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만들고 지주제급을 완전히 청산하며 착취와 압박의 근원으로 되여있던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뿌리채 뽑아버린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농촌들을 찾으시여 토지개혁실행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그해 3월 어느날 평양시 삼석구역의 한 농촌마을을 찾으시여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토지개혁실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지주집에서 머슴살던 한 농민의 이름과 분여된 평수가 적힌 표말을 땅에 힘있게 박아주실 때 그이를 우러르는 이 나라 농민들의 응어리진 가슴마다에 봄빛은 따사로이 흘러들었다.

정녕 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덕이였고 이 나라 농민들에게 안겨주신 가장 소중한 재부였다. 위대한 수령님 주신 땅이 그토록 귀중하기에 인민은 전화의 나날에도 불비속에서 전선원호의 보탑을 억세게 틀어잡을수 있었고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켜낼수 있은것 아니던가.

인민은 력사의 시련을 이겨낸 대지에, 우리 수령님 주시고 전화의 불길속에서 지켜주신 이 땅에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씨앗을 묻었다.

우리 인민이 세세년년 행복을 누릴 만년터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주신분은 어버이장군님이시다.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토지정리전투를 조직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거창한 토지정리의 불길속에 강원땅으로부터 평안북도와 황해남도를 비롯한 이 나라의 논밭들이 조상대대로 넘겨받았던 낡은 흔적을 털어버리고, 페이고 얽힌 주름살들을 쭉 펴고 눈부리 아득해지는 규격포전들로 전변되였다.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나날에 토지정리와 같은 대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은 이 땅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온 나라의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보란듯이 변모시키시여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귀중한 재부를 마련하신 그이께서 우리 수령님 찾아주신 이 땅을 어떻게 가꿔주시였던가.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지개벽된 사회주의대지에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생명수가 흘러들게 하시였다.

대지는 자기의 포전마다에 우리 장군님이야기를 영원히 품어안고있다.

토지정리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던 그때에 벌써 대동강물이 저수지들에 저절로 흘러들어가게 물길을 제면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 관개용수를 보장할수 있다고 보시고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진행하실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장군님,

선군시대의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는 속에 근 10년동안에만도 개천—태성호물길, 백마—철산물길, 미루벌물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연 1만여km의 자연호름식물길이 완성되여 수십만정보의 농경지를 적셔주며 관개용수가 흘러들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규격포전으로 획한하게 정리된 사회주의대지에 생명수를 주시여 행복의 열매가 주렁지는 황금벌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선군시대 사회주의농촌의 희한한 선경들이 우리의 눈앞에 우렷이 다가든다.

한드레벌의 지평선,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법안리의 선경, 미곡리의 가을풍경…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여 가꾸어주신 사회주의대지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만복의 터전으로 더욱 젊어지고 아름다와지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세포등관개간으로 대자연개조의 장엄한 뢰성을 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지켜주신 이 땅에 버림받는 땅이 한뙈기라도 없게 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의지에 떠받들리여 오랜 세월 잡초와 잡판목만이 무성하던 세포등관은 단 몇해사이에 로동당시대의 천지개벽을 자랑하고있다.

황량하던 옛 모습을 밀어내며 일떠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축산기지들, 끝간데없이 펼쳐진 사회주의대초원…

젊어지라 복받은 대지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이 자신들의 성실한 땀과 노력의 열매인 호곳한 먹이풀작황이 펼쳐진 드넓은 골관에 새겨넣은 이 글발을 외워볼수록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은 20리 남바다를 막아 일떠세운 서해갑문공사에 못지 않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라고, 우리 시대에 와서 수천년동안 버림받아오던 불모의 땅이 락원의 땅으로 전변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있다고…

그렇다. 오랜 세월 쓸모없던 대지, 빛을 잃었던 세포등관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고 사회주의만복을 가져다주는 청춘대지로 나날이 젊어지고있다.

어찌 이뿐이랴.

감격도 새로운 지난해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너무도 기쁘시여 보고 또 보시며 벌천지라고,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할 희한한 농장도시라고 그처럼 만족해하신 장천땅의 천지개벽,

장천지구건설형성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국수호의 전선길에서도 장천소식을 묻고 또 물으시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신 경애하는 그이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속에 장천땅에는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할 멋쟁이농장도시가 태여나게 되였다.

당에서 마음먹고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본보기로 꾸린것은 이 농장을 기준으로 삼고 온 나라 농촌들을 일신시키기 위해서라고, 일군들이 이 농장을 통하여 당에서 바라는 사회주의농촌문화의 본보기가 어떤것인가를 똑바로 알게 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은 얼마나 의미깊은것인가.

경애하는 그이의 마음속에 간직된 21세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이 어떤것인가를 장천땅은 웅변으로 전하여준다.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땅, 우리 장군님 황금벌의 력사를 펼쳐주신 이 땅을 오곡백과 무르익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가꾸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가시는 헌신과 로고의 세계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사회주의조국의 대지우에 수놓아진 위대한 전변의 력사를 돌이켜보는 인민의 마음은 뜨겁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력사, 우리 원수님의 력사가 비낀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것이며 그 한줌한줌의 흙에 담겨진 사연이 얼마나 천만심장을 울려주는것인가를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보는 이 나라 인민이다.

땅은 영원하다. 우리 안겨사는 위대한 태양의 품도 영원하다.

70년전 잊지 못할 그날에 려저오른 감격과 환희, 격정과 환호가 오늘도 이 땅에 행복의 오곡백과를 불러오는 봄노래되여 메아리치고있다.

수령님 주신 땅이여, 복받은 사회주의대지여, 무궁토록 젊어지고 아름다와지라.

본사기자 채 히 성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사회주의선경으로 천지개벽된 어리리벌 본사기자 김종흔 찍음

해방조국의 첫봄에 뿌리신 씨앗

사회주의조국의 대지를 누구나 한가슴에 소중히 안아보게 하는 3월 5일,

우리 수령님의 품속에서 산천도 인민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여나던 력사의 그 나날을 뒤돌아보는 인민의 마음속에 해방조국의 첫봄이야기는 뜨거운 추억을 불러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도 조국과 인민,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였으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습니다.》

주체35(1946)년 3월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는 대동군의 한 농촌마을을 찾으시였다.

따사로운 봄빛이 이 땅에 넘치던 그날 김정숙동지를 자기들의 고장에 모신 마을사람들의 기쁨은 참으로 컸다.

이웃 농민들에게 땅을 받은 기쁨이 크면 클수록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라고 하신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이 봄을 알곡증산으로 맞이하자고 하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씨앗이 담긴 다래끼를 드시였다. 농민들은 저마끔 만류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러는 그들에게 땅의 주인된 농민들과 이렇게 씨앗을 뿌리며 일하는 때가 기쁘다고 하시며 일손을 다그치시였다.

흙묻참이 되여서야 일손을 놓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농민들과 자리를 잡이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너무도 소탈하신 그이께 농민들은 저마끔 땅을 분여받은 기쁨에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대대로 머슴을 살던 자기 집에서 5 000평이나 되는 땅을 분여받은데 대한 한 농민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였지만 논밭에 제 이름을 쓴 패말을 박으며 울었다고, 정말 이 땅이 내 땅인가싶어 목 멈을 푸는것만 같았다는 다른 농민의 토로에도 진정이 넘쳐흘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땅의 주인이 되여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었으면 하는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기나긴 세월 일제와 싸우시였으며 해방된 조국땅에서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시여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신데 대하여 죄송할 수 있겠는가고 걱정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 누구도 장군님께서 주신 이 땅을 도로 빼앗지 못할것입니다. 나라없던 세월엔 한갖 꿈속에서만 그리던 우리 농민들의 절절한 숙망을 헤아리시여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는 피로써 지켜야 합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분여받은 땅을 목숨으로 지켜낸 유격근거지인민들의 투쟁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의 발악적인 책동이 심해질수록 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끝까지 지켜야 하며 농사를 더 잘 지어 전국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야 한다고 농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잊지 못할 그 봄날 농민들은 더없이 귀중한 이 땅을 대를 이어 목숨바쳐 지켜갈 맹세를 가다듬었다.

그 뜨거운 마음을 안고서 농민들은 장군님 주신 땅에, 백두산녀장군께서 찾으신 이 땅에 풍년씨앗을 뿌려갔다.

민주개혁, 민주건설로 강산이 들끓던 해방직후의 전변의 력사속에 농민들의 애국열의를 불러일으키시던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벌써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던 나날에◇

땅, 얼마나 하많은 사연을 전하여주는 우리 조국의 산과 들인가.

70일전투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벌을 바라보느라면 우리 농민들을 잘살게 해주시려, 인민들의 쌀독을 가득 채워주시려 한평생 포전길을 걸고걸으시며 헌신의 자욱자욱을 수놓아가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에 잠기게 된다.

분조관리제의 탄생

농촌테제가 발표된지 한해후인 주체54(1965)년 봄 어느날이였다.

강원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멀리 철령너머에 있는 산간마을인 회양군 포천리를 찾으시였다.

그날 농민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여 농사와 농민들의 생활형편, 작업반, 분조들의 구성과 그 관리운영정형 등 농장의 전반적인 실태를 료해하시는 과정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규모집단경리와 지도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 및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사이에 일정한 불일치가 있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시였다.

분조를 알맞춤하게 조직하여 생산의 기층단위로, 집단생활의 세포로 정함으로써 농장원들로 하여금 공동경리발전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포착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분조관리제를 실시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분조관리제를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 협동농장들에서 먼저 받아들여 경험을 쌓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해 11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그 경험을 분석총화하시고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분조관리제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생산의욕을 가지고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게 한 현명한 조치였다.

토지정리의 장엄한 포성

주체87(1998)년 5월의 어느 이른새벽 희천연시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를 멈춰세우시였다.

차창가로 지나가는 울망졸망 널려있는 뙈기논, 다락논들을 보신것이다.

오래도록 주변논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장군님 얼마나 가슴아파하시였던가. 그 얼마나 위대한 웅지를 안고 계시였던가. 그 새벽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원도의 토지를 대담하게 정리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며 즉시에 관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산이 많은 강원도에서 토지를 정리하면 많은 부침땅을 얻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원도의 토지정리를 본보기로 온 나라의 토지정리사업을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으로 내밀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집무실도 아니고 큰 회의장도 아닌 전선길의 자그마한 농촌마을 고즈넉한 들판에서 대규모토지정리의 파감한 작전으로 이 땅에 황금나락 물결치는 전변의 새 력사를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이 땅을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토지정리의 장엄한 포성을 이렇게 울리시였다.

사회주의주타격전방

주체103(2014)년 2월 6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밝히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그것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맡아나선 농업근로자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이였고 애국애로 부르는 열렬한 호소였다.

우리 나라가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것만큼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만 하면 적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마음먹은대로 배심있게 해나갈수 있다는 승리의 신심이 세차게 맥동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인 농업부문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혁신의 봉화를 앞장에서 추켜들고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한 호소에 이 나라 농업근로자들은 떨쳐나섰다.

본사기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쏘피아

벌가리아공화국 대통령

로쎈 쁠레브넬리예브각하

나는 벌가리아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의 발전과 번영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3월 3일 평 양

아크라

가나공화국 대통령

죤 드라마니 마하마각하

나는 가나독립 59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정부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3월 4일 평 양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념원 풀어주신 그 은덕 세세년년 전해가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신 7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발포 7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이날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이 땅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해결의 광활한 길을 열어주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세기적인 전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새 세기 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야말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신 7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을 쌀로써 결사옹위하는 농민영웅이 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박봉주동지, 양형섭동지, 곽범기동지, 로두철동지와 리철만 내각부총리겸 농업상,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농업지도기관 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지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며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농촌건설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전례없는 대승전고를 울려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중앙보고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발포 일흔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습니다.

이날을 맞으며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이 땅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해결의 광활한 길을 열어주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세기적인 전변을 안아오신 백두산철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하고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에서 농촌문제해결의 선차적인 과업은 토지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관계를 깊이 통찰하시고 해방후 토지혁명을 민주주의혁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그 바쁜신 속에서도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의 소박한 의견도 귀중히 들으시면서 농촌의 계급관계와 토지소유관계,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깊이 헤아리시였으며 토지문제를 농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습니다.

일찌기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실천적경험에 토대하여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기관과 일본인, 민족반역자와 지주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것을 토지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춘데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3월 5일 몸소 작성하신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습니다.

토지개혁법령의 발포는 우리 나라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해결의 빛나는 새 력사를 개척한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첫 조치로서 발포된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나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제시하신 토지강령의 직접적인 계승이였으며 그 빛나는 구현이였습니다.

토지개혁법령은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는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한 주체의 토지혁명강령이며 우리 나라 농촌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영원히 청산하고 사회주의에로의 계속혁명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토지법전이였습니다.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기회주의자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고농과 빈농에 의거하고 중농과 동맹하며 부농을 고립시키는 계급정책을 제시하시고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심각한 사회적변혁인 토지개혁의

파업을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농촌진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해방된 조선의 첫봄을 증산으로 맞이하며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농민들을 농업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농민들은 땅의 주인,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로동계급과 함께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강력한 주체적력량으로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토지개혁이 실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년력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에서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혁명적변혁과 전진이 이룩된 자랑스러운 년대기로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주체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시켜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이 구현되여 전후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과적으로 실현된것은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거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업화의 기초우에서만 농업협동화를 실현할수 있다는 기성의 리론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그것을 말이할만 한 주체적력량이 마련된 우리 나라 농촌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현대수정주의자들과 시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짧은 기간에 농업협동화의 위업을 완수하심으로써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세워주시였습니다.

비범한 예지로 우리 나라 농촌건설의 현실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과 기본원칙, 농촌건설의 기본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과 풍부한 경험을 집대성하시여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것은 주체사상의 원리와 계속혁명의 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준 력사적사변으로,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업적으로 됩니다.

몸소 농업전선의 전두에 서시여 한평생 험한 논두렁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걸으시며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농법을 창시하시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위력한 대중지도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수립하시여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가 강화됨으로써 나라의 농촌경리제도는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협동경리의 관리운영수준이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접근하고 농업생산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받들어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농업생산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농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선군시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제시하시여 농업문제해결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와 콩농사열풍을 일으켜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며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은 비상히 높아지고 문화기술수준에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도록 국가적조치들을 취해주시고 본보기농장들을 따라잡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의 어려운 시기에도 나라의 농업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가 이 땅우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였습니다.

천만시련이 가로놓인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봉건적토지소유관계의 마지막잔재마저 털어버리는 대규모의 토지정리사업이 진행되여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땅답게 천지개벽되고 자연흐름식물길이 건설되였으며 온 나라 도처에 과일생산기지와 현대적인 축산, 양어기지들이 일떠서고 농촌마을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된 경이적인 전변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변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주체적농업발전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강성국가건설사와 더불어 천세만세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끝없이 빛나고있으며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력사적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타격방향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정해주시고 조국력사에서 처음으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시였으며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는 선군시대의 애국농민, 농촌혁명카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집단과 동지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평범한 분조장의 삶을 영웅적삶으로 빛내여주시고 불미스러운 파지와 절멸하고 재생의 길을 걷는 이름없던 농장원도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며 농업근로자들을 한줄에 안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의리의 품에서 애국농민의 대부대가 자라나고 사회주의농촌전지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농업생산에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며 온 나라가 농업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의 시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고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실시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켜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하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세포지구의 대규모축산기지와 황해남도물길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고 《애국풀》재배열풍속에 풀먹는 짐짐승먹이문제를 풀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있으며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펼쳐지고 전국도처에 축산, 양어기지, 온실남새와 버섯생산기지들이 일떠섰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리상으로 그려본 21세기 사회주의문명농촌인 강원남새전문협동농장이 본보기농장도시로 희한하게 건설되고 그 불씨가 온 나라에 타번져 사회주의농촌이 천지개벽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불멸의 사회주의농촌건설업적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서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온 농업근로자들의 승전의 농악소리가 높이 울려퍼질것이며 이 땅우에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인민의 락원, 천하제일강국이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입니다.

토지개혁법령발포 70돐을 맞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마련해주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선군시대 농촌문제해결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새 세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새 세기 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며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쌀로써 당을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애국농민,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을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며 농촌의 사상전지, 계급전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농촌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치고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농업생산을 높이는 지름길은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다는 확고한 관점과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과학농사, 과학축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기관들과 협동농장일군들의 경영관리수준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정확히 실시하도록 하며 농업부문에서 자체로 농사짓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과 고산과수종합농장건설,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내며 당의 령도밑에 품들어 마련해놓은 축산, 양어, 버섯생산기지들과 남새온실을 비롯한 농업생산토대가 더 큰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4 면 으 로 계 속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딴낸 박근혜는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온 민족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2일 박근혜는 괴뢰국회를 압박하여 극악한 동족대결악법인 《북인권법》과 《테로방지법》을 강압적으로 조작해내는 또 하나의 만고대죄악을 저질렀다.

박근혜패당이 《북인권법》과 《테로방지법》을 조작한것은 우리에 대한 전쟁에 용납 못할 중대도발이며 북남관계를 전쟁에로 몰아가는 반민족적죄행범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고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회,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인민의 지상락원인 우리 공화국에는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에 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에 대해 한결같이 인정하면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 제도의 참모습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공화국에는 한번도 와보지도 못한 남조선의 시정배들과 국제인권모략군들이 추악한 범죄행위를 감행하고 조국과 혈육도 서슴없이 버리고 도주한 한줌도 못되는 인간쓰레기들이 꾸며낸 거짓자료에 근거하여 그 무슨 《인권법》을 조작해내고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뻔뻔스러운 정치기만극이고 내외여론에 대한 로골적인 우롱이다.

더우기 우리를 걸고 《테로방지법》을 조작해낸것은 국제테로의 왕초인 미국상전도 낯을 붉힐 희세의 정치만화로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에 대한 고립압살의 포위환을 좁혀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페허지대, 살인과 테로가 성행하는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로 전락시킨 박근혜패당은 애당초 인권이니, 테로니 하는것을 입에 올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

원래 오물장에는 오물이 쌓이기마련이다.

우리 공화국에서 죄를 지은 인간오물들이 남조선으로 도주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청결해졌으며 남조선오물더미는 더욱 더러워져 악취를 풍기고있다.

박근혜가 이 오물장우에 치마까지 걸어올리고 앉아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대화원을 오히려 시비질하고있으니 정신병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우기 민주와 진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백색테로, 정치테로를 공공연히 일삼고 우리 공화국의 주민들을 백주에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가 동족대결에 내몰고있는 박근혜패당이 《테로방지》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다.

인권유린의 원흉도 박근혜이고 테로의 왕초도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박근혜는 이번 악법의 조작으로 극악한 대결광신자, 희세의 파쑈폭군, 만고역적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우리는 이미 《북인권법》과 《테로방지법》조작은 우리에 대한 전면 체제대결선언, 전쟁도발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라는것을 선포하였다.

우리 천만군민은 박근혜역적패당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여 전면도발을 걸어온 이상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조치에 진입하게 될것이다.

만고역적 박근혜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되는 첫번째 대상이 될것이며 그에 동조한자들도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는다.

주체105(2016)년 3월 4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미국이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또 하나의 《제재결의》를 날조하였다.

그 악랄성과 불법성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이번 《제재결의》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날강도적인 조작품이다.

핵보유가 문제로 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먼저 핵을 가지였고 유일하게 핵을 사용한 미국부터 문제시해야 할것이며 우리의 핵보유를 문제삼자고 해도 그를 초래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핵위협부터 응당 문제시되여야 한다.

우리의 핵보유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 세계유일의 핵무기사용국이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 핵선제타격대상으로 지명하고 각종 핵전쟁살인장비들을 끌어들여 대조선적대시적동과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증시켜온데 대처한 불가피한 자위의 선택이다.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종전《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고 걸고들고있지만 애당초 그 《결의》들자체가 안전보장리사회의 권능을 벗어나 잘못 만들어진 강권의 산물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개별적나라의 핵시험을 금지시킬 권능이 있다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왜 필요하며 핵시험금지조약은 무엇때문에 필요한가.

위성발사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정상가동시키고 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개별적인 유엔성원국에게서 국제법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리용권리를 빼앗을수 있다는 권한은 도대체 유엔헌장의 어디에 규제되여있는가.

우리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자면 미국을 비롯하여 우주에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모두를 문제시하여야 할것이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적대시에 완전히 환장한 나머지 무기개발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스키장시설과 같은 체육기자재까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호화상품수출입금지》라는 치졸한 제재항목까지 고안해내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인민의 문화휴양지들에서 울려나오는 행복의 웃음소리를 막고 당이 인민들에게 약속한 사회주의문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제도를 무너뜨려보려는 악랄한 적대적목적과 반인권적성격이 깔려있다.

우리는 일개 렬강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도용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개발권, 생존권을 만폭하게 침해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번 《결의》를 포함한 모든 대조선《결의》들을 공정성과 적법성, 도덕성을 상실한 범죄적문서장으로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

수많은 유엔성원국들 특히 작은 나라들은 오늘 유엔기구체계안에서 가장 비민주주의적이고 불공정한 낡은 구조와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할데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으며 안전보장리사회의 부당한 결의들을 무시하는것으로 자기들의 반항을 표시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제재와 봉쇄속에서 자력자강해온 나라로서 이번에도 미국의 제재책동이 있을것을 알면서도 가야 할 길을 걸었다.

우리의 자강력은 장장 70여년간 끊임없이 감행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제재속에서 오직 자기 힘만을 굳게 믿고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에 의지하여 수소탄보유국, 위성발사국이 된 강용한 인민의 힘이다.

우리에게 그 어떤 제재라도 통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철저한 오산이다.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진행되여야 할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이며 위성발사는 설사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종식된다 하여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계속되여야 할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에 따르는 우주개발사업이다.

머지않아 세계는 우리의 병진로선이 빛나게 관철되는 로상에 있게 될 더 많은 조치와 행동들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조선반도비핵화가 영영 날아가버린 책임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포기를 끝까지 거부한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3월 3일
평 양

7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최고생산년도수준돌파를 위한 비약의 폭풍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2월전투목표 113.9%로 넘쳐 수행, 그 기세로 계속 전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지들은 지난해 전투에서 양양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올해에도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는것으로써 혁명을 보위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당 제7차대회장에로 향한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창조로 이어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졌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에서는 지난 2월 종전 일정계획보다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113.9%로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이는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이어놓고 세멘트증산성과로 당의 대전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상원로동계급의 충정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며 만리마속도로 질풍쳐 내달리며 70일전투에서 기어이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려는 이들의 신념과 의지의 뚜렷한 과시이다.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기세드높이 올해에도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려는것은 상원로동계급의 확고한 결심이며 드팀없는 실천이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첫달부터 비상히 높이 내세운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2월에 들어와서도 화선식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들끓는 전투현장마다에 좌지를 정한 당, 행정일군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전력보장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공급되는 전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대형설비들을 만가동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전당, 전군, 전민을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종전 일정계획보다 전투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일별, 주별생산총화를 실속있게 따라세웠다.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을 받아안은 상원로동계급은 일터마다에서 더 거세찬 비약과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당 제7차대회장에로 향한 70일전투에 파감히 진입하였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동무는 오늘 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라는 애국의 물음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새로운 증산돌격전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의 로동계급이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렸다.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기업소의 모든 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관리하고 순회점검과 예방보수를 실속있게 하면서 집채같은 대형설비들의 동음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갔다.

세멘트생산에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중앙조종실의 조종사들은 설비들의 운영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해나갔다.

공무직장, 주강직장을 비롯한 보장부문의 로동자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악랄한 책동을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로 태워버릴 기상안고 내부에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매일 많은 량의 세멘트를 생산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증산의 불길, 새로운 비약의 불길은 상원석회석광산과 화천탄광, 삼청광산에서도 타올랐다. 이곳 로동계급은 직장별, 경별, 소대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고 앞선 단위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면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70일전투기간 창조되고있는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고 실천에 구현한 결과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더욱 거세차게 타번졌다.

상원의 지난달 세멘트생산실적은 련합기업소가 생긴이래 2월생산실적에서 최고기록으로 된다.

조건은 어렵고 제기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상원로동계급은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전례없는 창조와 위훈의 나날들로 값높이 빛내이며 당 제7차대회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펏펏이 들어설 불같은 열의에 넘쳐 더욱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 충 성

주타격전방에 승전고 높이

70일전투에로 추동하는 사상공세

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충정의 70일전투로 들끓고있는 이 땅에 위대한 력사의 년륜이 새겨지고있다.

토지개혁법령발포 70돐!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승전고를 높이 울려 나라의 농업발전에 쌓아올린 전설적인 불멸의 업적을 끊임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나라의 농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는데로 당사업을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70일전투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도와 시, 군들에 강력한 당지도소조를 조직한데 맞게 당책임일군들과 당지도소조성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비상히 강화하도록 구체적인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빈틈없는 준비밑에 도당위원회와 시, 군당위원회책임일군들과 당지도소조성원들이 70일전투가 시작되자 일제히 전투장을 타고앉았다. 그들은 농장원대중속에 들어가 한평생 포전길을 걸으시며 농업전선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선전으로 사상공세의 힘있는 포성을 울렸다. 도와 시, 군들의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도 위대성교양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70일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전선동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70일전투에 들어가자마자 주요전투장들마다에 구호 2만 8 200여점, 표어 3만 5 200여점, 일력판 4 600여점, 전투속보 1만 2 300여개 등을 게시하여 농장원들을 들끓게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안의 힘있는 선동력량이 전투장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세차게 울리고있다.

도예술단성원들이 해주련결농기계공장,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 나가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협동농장들에 수많은 소농기구와 뜨락또르부속품을 보내주도록 하였으며 시, 군안의 경제선동대원들은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농사차비전투장을 비롯한 자기 단위 령도업적단위들과 주요전투장들에 나가 한주일동안에 2 260여차에 걸쳐 15만 8 2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선동활동을 벌려 70일전투에 떨쳐나선 전투원들의 앙양된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도일보사, 도방송위원회 기자들도 농사차비로 들끓는 협동농장들에 나가 혁신적인 성과들을 기동성있게 소개선전하였다.

도안의 강연강사들의 집중강연선전대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도당직외강연강사들은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16개 협동농장 작업반들에 나가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강연을 잘하여 농업근로자들을 탕전한 농사차비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혁명사적관을 비롯한 도안의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교양실, 출판물보급소, 계급교양관, 직관선전실들의 강사, 해설원, 직관원들을 무장시켜 전투현장에서 명도사적을 통한 선동과 도서를 리용한 위대성선전, 과학기술보급, 속보발간 등으로 70일전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힘있게 분출시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도 높아지고있다.

태탄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군기동예술선동대에 경제선동활동에 필요한 이동식음향증폭기재와 축전지 그리고 방송선전차부속품을 해결해주었다. 이것이 군당위원회와 군급기관 일군들을 발동하는 계기로 되여 손풍금을 비롯한 악기들이 새로 갖추어지게 되였으며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힘있게 울릴수 있게 하였다.

신천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은 당지도소조성원들과 선전선동부 일군들을 대상으로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70일전투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회를 진지하게 진행한 다음 녀맹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활동에 필요한 선동기재를 보장해주어 군적으로 진행하는 물길가시기전투현장에서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해주시당위원회와 재령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도 자기 단위의 선동력량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협동법을 들끓게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농사차비실적을 높여나가게 하고있다.

협동농장들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보장하는 단위의 당조직들에서도 올해농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생산자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사회주의주타격전방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이런 정치사업으로 하여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적으로 70일전투가 시작된지 10일동안에만도 포전들에 실어낸 질좋은 자급비료는 430여만t이며 대용린비료생산은 15만여t, 대용칼시움비료생산은 250여t의 기록을 세웠다. 비닐박막을 비롯한 모판자재준비는 완전히 결속단계에 들어갔으며 모판재료로 쓸 부식토반출은 88%수준을 돌파하였다.

뜨락또르출동식도 의의있게 조직하여 봄갈이실적을 올리고있는 시, 군들이 늘어나고있다. 태탄군에서는 지난 2월 25일 뜨락또르출동식을 진행하여 그것이 그대로 높은 봄갈이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있다. 3월 4일에는 강령군, 송화군, 안악군에서 뜨락또르출동식이 진행된데 이어 삼천군, 연안군에서도 뜨락또르운전수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출동식이 의의있게 진행되였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결의안고 우리의 미더운 뜨락또르운전수들이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밭을 갈고 더 높은 농사차비실적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가려는 농업근로자들의 불같은 열의는 황남땅을 들썩하게 하고있다.

뜻깊은 토지개혁법령발포기념일을 높은 농사차비실적으로 맞이하게 하는 도당위원회의 힘있는 선전선동사업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 위력한 포성으로 더더욱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장 철 범

수필 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머칠전 70일전투로 들끓는 명천군을 찾았을 때였다. 이른아침부터 도로를 꽉 메우며 흘러가는 거름운반행렬은 순간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며 소달구지와 자전거, 손수레 등에 거름을 가득 싣고 군복합미생물비료공장으로 향하는 군안의 수많은 기관, 기업소,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그리고 가두인민반원들…

그 흐름에 발맞춰 걸음을 옮기던 나는 앞서가는 녀인이 손수레에서 떨어진 주먹만 한 거름덩이를 귀한 물건처럼 주어드는것을 보게 되였다.

나는 그 녀인에게로 다가가 손수레를 함께 끌며 이렇게 거름을 많이 싣고가는데 괜히 손을 어지럽히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녀인은 입김을 날리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얼마나 귀중한 우리의 땅인가요. 이 땅을 기름지게 《보약》이라고 생각하니 한덩이도 무심히 볼수 없구만요.》

녀인의 소박한 말은 나로 하여금 땅에 대한 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예로부터 이 땅은 농민들의 생명과도 같은것이였다. 하지만 그 땅이 없어 우리 농민들은 얼마나 오랜 세월 피눈물을 뿌리며 살아왔던가. 봄내여름내 두손이 모지라지게 땅을 뚜지고도 가을이면 모조리 빼앗긴 설음에 울고 보리고개를 넘기지 못한 자식들을 품에 안고 가슴을 쥐어뜯던 우리 농민들이였다.

손바닥만 한 뙈기밭이라도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보았으면 하는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피타게 절규하던 이 나라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세세년년 황금이삭 물결치게 해주시려 한평생 포전길을 걸고 또 걸으신 우리 수령님, 이 나라의 어느 벌, 그 어느 산골짜기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자욱이 어려있지 않은 곳이 없기에 위대한 장군님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비물에 젖인 발머리도 손수 매우시고 거창한 토지정리전투로 내 나라의 전야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천지개벽시켜주신것이 아닌가.

진정 이 땅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헌신의 한평생이 어린 절세위인들의 넋이고 숨결이며 위대한 애국유산이다. 바로 그러한 이 땅에 황금벌의 새 력사를 대대손손 펼쳐주시며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 참호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땅, 이제 농민들의 생명이라고만 하랴.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들모두의 명줄이고 대를 이어 지키고 빛내여야 할 귀중한 삶의 터전이다.

하기에 농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 군대와 인민모두가 이 땅을 그리도 사랑하고 변함없이 가꾸어가고있는것이며 오늘은 또 당의 뜻대로 농업전선에서 반드시 대승전고를 울려 우리 혁명의 10년, 20년, 30년 미래를 담보하고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것이리라.

군당위원회일군이 자랑스럽게 외우던 성과자료들이 새삼스럽게 되새겨졌다.

70일전투가 시작되여 3일동안에만도 연 수백명의 군인민들이 동원되여 유기광물질복합알비료생산을 위한 700여t의 전거름과 칼한비료를 더 수집운반, 벼모판종합영양제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생산준비 완료…

벌써부터 기름진 대지에서 마음껏 단잠을 들이키며 알알이 무르익는 푸시들이 눈앞에 그려졌다. 더불어 사회주의주타격전방으로 달리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애국의 마음들이 안아올 풍요한 가을이 가슴부풀게 어려왔다.

땅은 농민들이 가꾼다고 한다. 그러나 백두산혈세위인들의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있는 우리의 대지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심장에 품어안고 가꾸어야 할 어머니품이 아니랴.

사회주의 이 땅을 위해 바쳐가는 뜨거운 마음들이 도도히 굽이치는 대렬을 바라보는 나의 귀전에는 해방된 조국의 대지를 밟으시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금 쟁쟁 메아리쳐왔다.

조국의 모든 풀과 나무들이 이 땅을 무심히 걷지 말라, 이 땅을 무심히 보지 말라, 이 땅에 무심히 살지 말라, 이 땅은 흙이 아니라 피덩이이다라고 웨치는것 같습니다. …

본사기자 장 은 염

굴할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들끓는 협동벌

울려갈 불같은 열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새 기록, 새 기적 창조

70일전투를 통하여 당과 혁명에 대한 자기들의 충정을 검열받을 자각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서해벌방 농업근로자들이 새 기준, 새 기록, 새 기적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다.

대한군에서는 모든 포전들에 정보당 6t이상의 해염토를 실어내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종전같으면 엄두도 못낼 기적같은 이 성과는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주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화선식으로 박력있게 해나감으로써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비약의 열풍을 일으킨 군책임일군들의 사업기풍이 낳은 결실이다. 특히 그들은 물전기재들의 만가동이자 해염토운반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7종에 1 700여점의 뜨락또르부속품을 책임적으로 해결해주었다. 결과 70일전투가 시작된 첫 하루동안에만도 그전보다 1 000t이상의 해염토를 운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증산군농기계작업소에서 자체로 만든 대용연료에 의한 발동발전기를 만가동시켜 농기계수리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이 세차게 끓고있다. 땅의 주인, 농사의 주인된 자각안고 충정의 70일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는 토지개혁법령발포기념일을 맞으며 더욱 고조되고있다.

기적 창조

토지개혁법령발포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불같은 결의안고 이곳 일군들은 일별, 주별전투계획을 짜고들었다. 협동벌마다 기계화의 동음 더 높이 울리게 할 드높은 열의안고 떨쳐나선 모든 종업원들은 대용연료에 의한 발동발전기에 만부하를 걸어 뜨락또르수리계획을 매일 1.5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보다 수십대의 뜨락또르를 더 수리하는 새 기록을 세웠다. 그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도움이 되는 종합논토양판리기계와 유기질복합알비료성형기를 생산하기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엄주군에서는 열흘이 걸려야 끝낼수 있다던 림정천제방보수공사를 3일동안에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사실 열흘동안에 해제껴야 할 이 공사과제는 방대하였다.

하지만 공사에 동원된 농업근로자들은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긍지높이 대답하자면 하루를 열흘, 백날맞잠이로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하면서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였다.

결과 3일동안에 근 2㎞구간의 성토작업과 장석공사를 끝내여 무더기비와 큰물로부터 수백정보의 농경지를 보호하고 정보당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하였다. 군에서는 그 기세로 남압천제방보수공사도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맹렬한 추적전

서해벌방의 그 어디서나 앞선 단위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안악군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거름실어내기전투에서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 앞장에 령도업적단위들이 섰다. 거름이 나간것만큼 쌀이 들어온다는것을 명심한 오국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은 왕성한 일욕심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매일 맡겨진 계획을 16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대추협동농장의 농장원들도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를 쌀로써 빛내일 각오안고 전례없는 생산실적을 올리였다.

군안의 모든 농장들이 앞선 단위를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거름실어내기성과를 높여나갔다. 치렬한 경쟁열풍속에 군에서는 토지개혁법령발포기념일을 앞두고 거름실어내기를 끝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은천군 판해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념願안고 각종 유기질비료실어내기를 다그쳤다.

제6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방도를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옳바로 실시하는데서 찾고 분조별, 농장원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유기질비료실어내기실적은 그전보다 1.2배로 뛰여올랐다.

농장에서는 제6작업반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작업반들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전례없는 로력적위훈을 전투기록장에 써나가려는 농장원들의 뜨거운 열정에 의하여 농장의 유기질비료실어내기는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지금 서해벌방의 그 어디서나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승리의 5월을 향해 질풍같이 달리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은 당이 대위준 만리마를 타고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으로 기어이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릴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주 창 일

3면에서 계속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불타는 애국심과 공민적자각을 안고 농업부문에 필요한 영농자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며 농촌을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놓으신 55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민족사적인 사변들을 다제단으로 안아온 자강력제일주의체현자들처럼 불리한 조건과 어려운 난관을 박차고 산악같이 일떠서 농업전선에서 전례없는 대승전고를 울려야 하겠습니다.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며 기적과 위훈을 펼친 전세대 애국농민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이어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에 떳떳이 대답하며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종국적승리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열의안고 농사차비를 주인답게 잘해나가고있다.
—재령군 김제원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원쑤들의 마지막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반제계급교양의 열도를 더욱 높이자

목숨으로 지키리라, 참된 삶의 영원한 보금자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들이 뜨겁게 끓어번진다.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타번지는 수천척지하막장으로부터 바다로 나가는 고기배들의 고동소리 높이 울리는 로구에 이르기까지, 북방의 강설을 녹이며 맹렬한 돌격전이 벌어지는 백두산기슭에서부터 세포등판에 이르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 휘몰아치는 70일전투의 열풍속에서 제일 뜨겁게, 제일 세차게 말아오르는 전선은 어디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순간도 늦추거나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입니다.》

70일전투의 시작과 더불어 날마다, 시간마다 수많은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그 모든 성과들을 합친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의 사실이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을 격동시킨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발표후 단 이틀동안에 전국적으로 150여만명의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이 조국보위초소에 탄원!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올 때마다 원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멸적의 의지를 안고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총대를 잡을것을 열렬히 탄원하는것은 적들과 총부리를 맞대고 사회주의를 건설해온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하나의 전통이기도 하다.

하지만 력사적인 70일전투의 시작과 더불어 온 나라에 불아치는 폭발적인 참군열풍과 원쑤징벌의 열의는 참다운 삶의 보금자리를 찬탈하려는 악의 무리들과 최후결산을 하려는 무자비한 보복의지의 분출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강렬하고 뜨거운것이다.

통탄세멘트공장 능력확장공사장에서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하자마자 단원모임을 열고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한 강원도청년돌격대 대원들은 불과 며칠사이에 크링카분쇄장건설을 위한 넓은 면적의 지대정리와 수백㎥의 혼석채취를 완료하였다.

들처럼 언 땅을 뚫어내며 이전같으면 얼흘이 넘어야 하는 아름찬 작업량을 해제낀 이들의 마음속에 끓고있는 원쑤적멸의 의지는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들적대정치일군인 박명진동무는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감히 어째보려는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이 그대로 혁신의 원동력이 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70일전투목표는 결코 대상건설만이 아니다. 우리모두가 원쑤에 대한 적개심이 뼈속까지 배인 계급의 전위투사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것이야말로 70일전투에서 우리가 점령해야 할 첫째가는 목표인것이다.

반제계급전선이야말로 오늘의 대진군길에서 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고 한시도 피랄할수 없는 조국수호의 전초선이라는것을 다시금 되새겨주는 그의 말에서 70일전투와 더불어 나날이 장렬해지는 반제계급투쟁의 열도를 느낄수 있었다.

지나온 력사를 돌이켜보면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이 일어나고 창조의 재부가 늘어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억세게 다져진것은 다름아닌 반제계급의식이였다.

70고개를 넘은 오늘까지도 두팔이 없는 몸으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제일선을 지켜가고있는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리옥희녀성은 바로 그 력사의 체험자이기도 하다.

우리 혁명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70일전투가 벌어지고 속도전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던 1970년대에 리옥희녀성을 찾아와 강의를 받은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의 수는 한해에 무려 수십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창조와 건설의 열도가 뜨거운것만큼 반제계급의식으로 무장하기 위한 대중의 열의도 불같았다.

가는 곳마다에서 착취받고 억압받던 지난날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체험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영화와 카극으로 련이어 각색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영원한 교과서가 마련되던 때가 바로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환의 년대인 1970년대였다.

어이하여 우리 인민은 창조의 동음, 행복의 웃음 높이 울릴수록 계급적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다졌던가.

새로 건설되는 남포시의 육아원, 애육원에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를 성과적으로 도입하여 70일전투의 첫걸음을 크게 내짚은 대안친선유리공장 과장 조정철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순간이라도 원쑤를 잊고 산다면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계급투쟁의 진리를 물처럼, 공기처럼 마시며 자라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반제계급투쟁의 전초선에 있습니다.》

그렇다. 혁명의 승패, 사회주의승패를 걸고 최후의 결전에 떨쳐나선 우리는 행복의 창조자, 향유자이기 전에 계급의 전초병이다.

천추만대를 두고 기어이 결산해야 할 피맺힌 원한이 언제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되여있었기에 건설을 하면서도 복수의 칼날을 항시 벼렸고 행복으로 벅차지는 가슴속에 항상 쓰러진 부모형제들의 피값을 새겨안고 살았던것이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피어린 력사의 체험자들도 우리곁에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 땅을 또다시 살륙참화의 피바다속에 잠그려는 살인귀들은 아직도 이말을 칼끝 발악하고있다.

원쑤들이 《참수작전》이니, 《제제봉쇄》니 하는 망발을 짖어대며 어지러운 핵전쟁연습의 총포성으로 창조와 건설의 70일전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땅우에 단 한놈의 원쑤라도 남아있는 한 계급의 전초병들은 절대로 총을 놓지 않을것이며 반제계급전선은 강성국가건설의 영원한 최전방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우리의 천만군민은 한목숨다 바쳐 반제계급전선을 지켜 싸울것이다.

본사기자 승철진

복수자들의 심장의 웨침

원쑤들의 침략은 오늘도 계속된다

10여년간 계급교양의 전초선에서 참관자들에게 수많은 강의를 해오면서 매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사진자료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신천군에 기어든 미제원쑤놈들이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는데 리용한 대못을 찍은 사진이다.

살인마들의 대못이 인민들의 머리에 박힐 때 그들이 피타게 부르짖은 웨침은 과연 이 땅에 어떤 교훈을 남겼던가.

원쑤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원쑤와는 피를 물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력사의 진리이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변할수 없는 본성이다.

60여년전 무고한 애국자의 머리에 물리적대못을 박았던 침략자들의 후예들이 오늘은 자라나는 우리의 새 세대들에게 정신적대못을 박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우리가 순간이라도 력사의 교훈을 망각한다면 원쑤놈들의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의 대못이 우리의 심장에 박히게 될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바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이다.

중앙계급교양관 교양과장 량정금

조국이 있어야 청춘의 리상도 있기에

얼마전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추천서를 받아안았다.

얼마나 소원했던 꿈이고 희망이였던가. 그러나 나는 대학생이 아니라 총잡은 군인이 될것을 결심하였다.

지난 2월 24일 《로동신문》 1면에 실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보는 순간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로부터 《참수작전》이 바로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원쑤놈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한 우리가 누리는 행복보다 그 행복을 지켜 싸우는것이 몇백몇천배로 더 중요하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나는 당이 안겨준 청년전위라는 고귀한 칭호를 가슴에 안고 최전연초소로 용약 달려나가 이 한몸이 그대로 태양을 옹위하는 방탄벽이 되여 청춘을 빛내여나가겠다.

통성구역 중이교급중학교 학생 김송이

징벌의 억센 힘—자강력

지난해 우리는 원쑤적멸의 의지를 더욱 깊이 새겨주는 계급교양의 거점인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았었다.

전시된 자료들을 돌아보던 우리는 썩고 병든 서방문화에 물젖어 정신적불구자로 되여가고있는 남조선청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였다.

남의 총에 물들어 시들어가고있는 남조선청년들의 모습은 학생청소년들을 위한 가방용천생산기지건설을 맡은 우리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해주었다.

우리가 당에서 준 과업을 제때에 수행하지 못한다면 새 세대들의 머리속에는 우리의것에 대한 애착이 점차 사라지고 사대굴종사상이 지배하게 된다는 생각이 사무쳐왔다.

하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어도 남의 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창조적인 지혜와 열정으로 떵실공히 우리의것이라고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새로운 가방용천생산공정을 기어이 일떠세웠다.

자강력의 결정체인 가방용천생산공정에서 울려나오는 생산정상화의 동음, 그것은 머지않아 세상만물을 누리며 살게 될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혁명승리의 동음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원쑤들에게는 무서운 철추를 내리는 징벌의 동음인것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종합직장 3직포직장장 문경실

신천의 어머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 한하늘을 이고 같이 살수 없으며 적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신천박물관 참관을 마치고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 한폭의 선전화가 안겨온다.

어린 딸애를 품에 안고 무섭게 노려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린 어린 딸애의 새둥지고리는 피에 젖고 찢겨져있다.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새겨주는 선전화의 주인공을 바라보느라니 우리의 눈앞에 방금 전시실에서 본 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당시 신천군 산천면 경지리 녀맹위원장이였던 김경애녀성의 불굴의 모습이다.

1950년 10월 중순 산천면 경지리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은 김경애녀성이 구월산인민유격대와 내통하였다고 하면서 그를 이곳 인민들이 싸움준비를 위해 파놓은 전호로 끌고갔다.

그 어떤 회유와 기만에도 김경애녀성이 끄떡하지 않자 놈들은 그의 2살 난 딸애를 끌고와 비밀을 대지 않으면 딸애를 눈앞에서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세상에 태여나 두해, 아직은 엄마라는 말밖에 모르는 철부지 어린애를 피비린 살륙장으로 끌어낸 미제야수들.

딸애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

그 울음소리는 김경애녀성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 받아보지도 못한채 아수의 손에 매달려있는 딸애를 바라보는 김경애녀성은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그는 놈들에게 추상같이 웨쳤다.

《이놈들아, 네놈들이 내 딸은 죽일수 있어도 조선로동당원인 나를 굴복시킬수 없다.》

순간 놈들은 빨갱이년은 씨종자까지 말리워야 한다면서 김경애녀성과 딸애를 전호속에 밀쳐넣고 생매장해버렸다.

귀여운 딸애를 품에 안고 땅속에 묻힌 신천의 어머니.

인간의 가장 깨끗한 모성애마저도 서슴없이 생매장해버린 식인종무리들이야말로 인간세상에서 영영 쓸어버려야 할 불구대천의 원쑤라는 피의 교훈을 새겨주는 신천의 어머니.

어린 딸애를 품에 안고 원쑤놈들을 노려본 김경애녀성의 모습은 그가 이 땅에 남긴 최후의 모습이였다.

얼마나 많은 신천의 어머니들이 인간백정, 아수의 무리들을 노려보며 이 땅에 묻히였던가.

박영교, 리옥봉, 심음전 그리고 사백어머니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귀여운 자식들의 손목을 잡고 불밤은 지리를 걸어갈 때에도, 뜻깊은 어머니날 자식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에 겨워 웃고있을 때에도 신천의 어머니는 언제나 증오가 빛발치는 눈초리로 원쑤들을 노려보며 행복넘친 오늘에도 피의 복수를 부르고있다. 그 눈빛이 잠시라도 흐려진다면 오늘의 행복이 원쑤들의 손에 무참히 짓밟히고말기에.

오늘도 신천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신천의 어머니를 형상한 선전화앞에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그앞에서 사람들은 서리발어린 계급의 칼날,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린다.

그렇게 벼려진 계급적자각이 나라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게 하고 군관인 남편들의 부사수가 되여 나라의 맏며느리로 살게 하는것이 아닌가.

사람들이여, 신천의 어머니를 선전화나 박물관에서만 찾지 마시라.

수십년동안 복수를 부르는 그들의 넋을 가슴에 안고 자식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 조국에 내세우는 이 나라 어머니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신천의 어머니이다. 그들의 뒤에 수천수만의 복수자들이 있음을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리신향

하나의 도장이 새겨주는 피의 진리

지난 2월 23일 우리 윤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것이라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발표된 후 단 이틀동안에 전국적으로 150여만명에 달하는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대학, 고급중학교학생들이 조선인민군 입대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수산땅의 수정도장이 새겨준 피의 진리, 무자비한 심멸의 의지가 만장약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자그마한 환상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수산리계급교양관에 전시되여있는 애국자들의 유물들속에는 수정으로 만든 도장이 있다.

피절은 사연이 깃든 유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믿기 어려울만큼 수정도장은 티 한점 없이 맑다. 하지만 그 수정도장이 새겨주는 계급투쟁의 진리는 얼마나 처절한것인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수산땅을 강점한 미제침략군놈들로부터 《빨갱이물을 먹은 놈은 한명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이라.》라는 살인명령을 받은 계급적원쑤놈들은 로동당원들과 애국농민들은 물론 로인들과 어린이들도 닥치는대로 잡아들이였다. 그렇게 수백명의 사람들을 잡아들이고도 놈들은 성차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내여 죽일것인가를 생각하며 골통을 쥐어짜던 원쑤놈들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라, 용서해주겠으니 이름이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도장이나 증서를 가지고 찾아오라, 그러면 사람을 확인하고 돌려보내겠다고 너스레를 떨어댔다.

원쑤놈들의 꾀임에 속아넘어간 몇사람이 놈들을 찾아갔다.

교활하기 그지없는 놈들은 그들의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였다.

각성되지 못한 그들은 마을들에 돌아가 놈들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설복하였다. 이렇게 되여 수많은 사람들이 원쑤놈들에 대한 미련을 품고 적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원쑤놈들은 그렇게 찾아온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망치와 돌로 머리를 까거나 대못을 박고 떡돌, 통나무로 짓눌러죽이였으며 사지를 찢고 도끼로 팔다리를 자르거나 토막쳐죽이고 시뻘겋게 달군 인두와 쇠꼬챙이로 지져죽였으며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까지 끄집어내여 죽이는 등 짐승도 낯을 붉힐 100가지가 넘는 잔인무도한 살륙수법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

원쑤에 대한 환상은 이렇듯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종당에는 비참한 죽음의 나락에 굴러떨어지게 한다.

하기에 수산땅의 수정도장은 해방된 조국에서 새 생활창조로 희열넘치던 이 땅을 인간도살장으로 만든 살인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단죄하며 원쑤에 대한 환상은 죽음, 원쑤들을 살려두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피의 교훈을 천만의 심장에 팡팡 새겨주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흐르는 세월과 함께 더욱더 가증된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천백배의 증오와 복수심을 활화산처럼 터질 그날을 일일천추로 기다리고있다.

이 땅에 흐르는 70일전투의 하루하루가 앞으로의 판가리결전에서 원쑤들을 보조리 요정내고 최후승리를 이룩할 시각으로 향하고있다는것을 원쑤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조경철

미제원쑤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참관자들 —신천박물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이룩되고있는 눈부신 성과

용수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

생산성과를 확대하며 전진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7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룡수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힘찬 돌격전을 벌려 첫달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한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열의드높이 전진속도를 계속 높이며 석탄생산성과를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당정책의 운명이 자기들의 두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지배인 안석철동무를 비롯한 탄광의 일군들은 들끓는 갱막장들에 전투과지를 정하고 탄부들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그들의 애국적열정을 총폭발시키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일군들은 통발과 탄차, 레루 등 막장설비와 자재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3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그들은 작업굴진을 앞세워 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해놓고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1.2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특히 아치형통발을 적극 받아들여 통발나무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석탄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또한 막장에 쭈려놓은 튼튼한 공무수리기지에 의거하여 전차와 탄차를 비롯한 막장설비수리보수를 깐지게 하고 운반선로관리를 짜고들어 생산된 석탄을 지체없이 끌어내고있다.

1갱과 로천갱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주체조선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3갱 김영산고속도굴진소대, 로천갱 백승기고속도굴진소대, 민춘홍굴진소대, 2갱 김정균고속도굴진소대, 1갱 홍철호굴진소대를 비롯한 탄광의 많은 굴진소대들에서 굴진이자 석탄생산이라는 자각을 안고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며 굴진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직장장 김성태동무를 비롯한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막장설비와 부속품들을 충분히 보장해줌으로써 석탄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고있다. 탄광의 카두녀맹원들이 탄부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갱막장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석탄생산성과로 맞이하려는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애국적열정으로 하여 석탄생산실적은 계속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각지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충정의 70일전투의 첫시작부터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해나가며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채취설비생산 1.8배이상 장성

채취기계공업국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전투의 첫날부터 대비약의 열풍을 일으켜 대상설비생산에서 근 2배의 생산장성을 이룩하였다. 이들은 지난 2월말까지 2월생산계획을 186%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1.4분기계획도 빛나게 완수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채취기계공업국과 그아래 어러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보내줄 각종 뽐프와 전동기, 착암기, 감속기를 각각 1.7배, 1.8배, 1.5배, 1.9배로 넘쳐 생산하는 높은 기록을 창조하였다.

안주뽐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그 기세를 늦춤이 없이 승리의 5월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전천착암기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자강력제일주의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을 적극 앞세우면서 중주과유도로를 자체의 힘으로 개조하여 착암기생산의 돌파구인 주물소재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 2월생산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에 필요한 대상설비를 전량 생산하여 보내준 룡림전기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70일전투의 결승선에 남먼저 들어설 높은 목표를 세우고 대비약, 대혁신의 열풍을 거세차게 휘몰아가고있다.

평양탄광기계공장과 신의주광산기계공장, 장산전기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설비, 부속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면서 승벽심을 안고 경쟁열풍을 일으켜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윤금찬

대상건설에 필요한 베아링생산 결속

룡성베아링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경제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베아링생산을 련이어 결속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이들은 지난 2월말까지 공장앞에 맡겨진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과 화력탄수송화차들의 수리에 필요한 베아링생산과제를 전부 끝내고 해당 건설지휘부로 실어보내주었다.

전투기간 가열로보수전투장과 단조, 소둔과 열처리, 연마를 비롯한 기본공정을 지켜선 전투원들이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단조직장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보통 10여일은 걸려야 할 가열로보수를 불과 4일동안에 끝내였고 대형직장과 자동선직장의 로동자들은 지령원들과 함께 매일 전투실적을 스스로 검증받는다는 자각을 가지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전투과정에 불소재가 떨어졌을 때 선재압연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여러차례의 실패에도 물러서지 않고 압연기를 안내지구를 제품의 정밀도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개조함으로써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쥐고나갈 때 달려나와 충정의 땀과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이들의 뒤를 이어 흥성철동무를 비롯한 삼천광구의 로동자들과 공무직장 로동자들이 70일전투에서 한마음한뜻이 되여 전투의 첫날부터 맡은 과제를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온 광산마을이 이들의 생산전투를 적극 지원하고있다.

매일 높은 전력생산실적 기록

전국각지의 수력발전소로동계급이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전력공업성 수력발전관리국 일군들이 전국각지 수력발전소들에 전투지휘소를 정하고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허천강발전소의 로동계급이 인민경제의 동력을 책임진 전초병들답게 전력증산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겨울철조건에 맞게 취수구와 수문을 비롯한 수력구조물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수자식조속기를 확대도입하여 70일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계획을 103%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서두수발전소와 위원발전소에서는 물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며 잠아놓은 물이 전력생산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고있다. 특히 위원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강행돌파하여 우리 당에 크나큰 기쁨을 드린 상원강철생산의 한몫을 맡았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어려운 난관을 대담하게 맞받아나가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광산의 생산실적은 계속 뛰여오르고 충정의 70일전투의 불길은 더욱더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자력갱생으로 비약적인 성과를

온 나라에 타번지는 충정의 70일전투의 불길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룬무리광산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투를 시작하여 매일 전투목표를 200%이상 수행함으로써 광산이 생겨 일찌기 없었던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정명하, 리성복동무들을 비롯한 광산의 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받아안고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는 광산의 로동계급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광산참모부에서는 모든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전투를 벌려야 하는데 맞게 광산의 모든 력량을 생산전투에 집중하는 한편 비생산단위들과 보장단위들에서도 자기 맡은 본신과업을 해제끼면서 생산과제를 맡아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장동일, 림병춘, 신유진동무들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자신들이 앞장에서 서서 물전기재가 떨어서면 손달구지를 끌고 기계설비가 멎으면 서슴없이 함마와 망치로 때어서라도 그날과제를 무조건 150%이상씩 해제끼면서 전투원들을 이끌고있다. 운수중대와 공무중대의 초급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기들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광석채취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확증하였다.

어디서나 공격전의 열풍이 몰아치는 속에서 화력탄수송화차수리에 필요한 베아링생산을 맡은 로동자들도 지난 2월말까지 맡은 과제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장비직장과 기술과, 장비실을 비롯한 공장의 기술집단과 로동자들은 전문공장에서만 제작할수 있다던 보호철사솔기의 형타를 수입산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냈다.

이곳 생산자들은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더욱 눈부신 생산성과로 빛내일 신심드높이 화력발전소들과 철도운수부문, 농업부문과 탄광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낼 베아링생산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자력갱생으로 비약적인 성과를

온 나라에 타번지는 충정의 70일전투의 불길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룬무리광산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투를 시작하여 매일 전투목표를 200%이상 수행함으로써 광산이 생겨 일찌기 없었던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정명하, 리성복동무들을 비롯한 광산의 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받아안고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는 광산의 로동계급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광산참모부에서는 모든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전투를 벌려야 하는데 맞게 광산의 모든 력량을 생산전투에 집중하는 한편 비생산단위들과 보장단위들에서도 자기 맡은 본신과업을 해제끼면서 생산과제를 맡아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장동일, 림병춘, 신유진동무들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자신들이 앞장에서 서서 물전기재가 떨어서면 손달구지를 끌고 기계설비가 멎으면 서슴없이 함마와 망치로 때어서라도 그날과제를 무조건 150%이상씩 해제끼면서 전투원들을 이끌고있다. 운수중대와 공무중대의 초급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기들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광석채취장으로

천하에 둘도 없는 눅거리 미국산 앵무새

이 행성에 70억명의 인류가 산다고 하지만 박근혜만큼 온갖 추한 오명과 악명이 셀수없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존재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춘하추동 밤낮으로 대결에 악을 쓰느라 피골이 상접한 그 어린 몸뚱이에는 사나운 암독사, 늙다리 암개, 더러운 암박쥐 등 정의롭고 선량하고 절개굳은 우리 민족이 제일 싫어하고 증오하고 역스러워하는 흉칙한 짐승의 이름이 줄줄이 매달려있다.

자기 동족을 향해 제 죽을지 모르고 정신없이 놀아대는 그 모든 꼬락서니들을 비웃하여 붙인 오명들은 아무모로 보나 적중하기 이를데 없다.

그중에서도 미국상전의 요구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개의치 않고 목이 터지도록 기꺼이 되받아 고아대는 박근혜의 볼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저한 미국산 앵무새라고밖에는 달리 볼수 없게 하고있다.

하긴 지금껏 미국이 짜준 각본에 따라 나발통역할도 하고 행악질도 하며 날파 달을 이어온 박근혜에게 우리 겨레는 이미 세상에 둘도 없는 미국산 앵무새라고 저주의 누런 침을 뱉아버린지 오래다.

지금까지 박근혜가 저지른 죄많은 파저행위는 그만두고라도 최근 동족의 첫 수소탄시험의 장쾌한 폭음과 지구판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거대한 뢰성에 질겁하여 놀아댄 실상의 일부만 언급해보고저 한다.

우선 박근혜는 초보적인 제 주견도 없이 미국상전의 요구라면 백사불구하고 그대로 주절대는 천하에 보기 드문 철저한 미국산 앵무새이다.

자주와 존엄이 없으면 속이 텅 빈 잡대처럼 항방없이 불어치는 못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기마련이다.

한즉 박근혜의 경우에는 제것이라고는 솜털만큼도 없고 있다면 머리꼭뒤에서부터 발꿈치까지 미국의 노랑물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박근혜는 지난 2월 중순 그 무슨 《국회》연설학에 나서서 《제도붕괴》와 《고립붕괴》라는 수작을 열두번이나 줴쳐댔다.

이는 현실에 대한 사유기능이 마비된채 오직 미국상전의 혼령에 따라 부리를 놀려대는 앵무새의 기질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미국은 지난 1월 12일 우리의 수소탄시험을 빗대고, 2월 11일에는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 그 무슨 《초강경대북추가제재》라는것을 발표해댔다.

그러자 상전의 의도를 제꺽 받아문 박근혜는 공개석상에 나타나 그 잘난 입부리를 쉴새없이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길가에 흔하디흔한 막돌도 비웃을 저능아이지만 상전의 의도를 파악하고 실행하는데서는 귀신도 울고 잘 정도로 솜씨가 간단치 않은 박근혜이다.

청와대입장권을 쥐어준 미국상전에게 감지덕지하여 그 즉시 미국대통령 바라크 오바마에게 전화를 걸어 《바라크》는 《축복》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것 같다고 주절거리면서 제 이름의 《혜》자도 같은 의미라고 요사를 떨어댄 박근혜는 대양전너 상전에게 날아갔을 때에도 미국상전이 써준 각본을 첫 연설문이랍시고 줄줄 내리읽어대는 솜씨를 보여주었다.

박근혜가 코테를 부리며 《협맹》, 《우정》을 떠들고 《정이 많이 들었다.》고 추파를 던지자 오바마는 《신뢰프로세스》는 《몇해 동안 내가 해온것과 비슷하다.》며 앵무새를 《애무》하듯 등을 다독여주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긴 올전적으로나 제질적으로 분석해보아도 달리될수 없는 박근혜이다.

친일친미가 머리털끝까지 배인 애비 박정희만 보아도 지난 항일전쟁시기에는 신누런 《황군》복장을 하고 일본도를 휘두르며 황망한 만주광야를 돌아친 특등일본인이였으며 해방후에는 《승공통일》을 부르짖으며 미국의 전쟁사냥개가 되여 콩크리트장벽까지 쌓아대며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광분하였었다.

사람들은 흔히 박근혜를 가리켜 애비를 먹고 게운 그야말로 치마두른 박정희라고 정하군 하였다.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국놈들의 사타구니를 끌어안고 시키는대로 놀아대면서도 동족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 적대와 대결로 일관된 독설과 폭언을 골라가며 줴쳐대는 박근혜를 미국산 앵무새라고 락인하는것은 너무나도 지당한것이다.

박근혜는 입만 벌리면 제 동족을 허무니없이 비방중상하고 악착스레 허비는 못된 악담질에 이골이 난 미국특종의 앵무새이다.

우리 조류사의 앵무새들은 사람의 말을 즐겨 되받아넘기다가도 기분이 잠치거나 말을 시키는 사람이 불결해보이면 부리를 다물고 열지 않는다.

앵무새도 제나름대로의 관단이 있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우리 조류사의 앵무새보다도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철두철미 미국산 앵무새로서의 기질을 소유하고있다고 평할수 있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대북금융제재》라는 언내가 물론 나는 범벅따위를 내놓고도 미국상전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희열을 감출줄 모르기때문이다.

지난 《3.1절기념식》연설이라는데서도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인 수소탄시험과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행사인 위성발사를 두고 《국단적인 도발》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고아대다못해 나중에는 《올연 제재결의》가 곧 저들의 《단호한 의지의 응집》을 보여준다고 청을 돋구어댔다.

어찌보면 미국상전조차 공정한 세계여론이 두려워 감히 내뱉지 못하는 망발도 꺼리낌없이 입부리에 올리는 천하악종이 박근혜이기도 하다.

내 나라의 맑은 하늘에 함부로 주먹질해대는것도, 동족의 머리우에 외세의 핵참화를 들씌우려고 발광해대는것도 박근혜가 천법이라는것이 무엇인지, 핵전쟁의 핵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백치이기때문이다.

박근혜는 입부리를 놀려댈수록 제 죽을 날만 재촉한다는것도 모르는 가련하고 미련한 미국산 앵무새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좋은 덕담에는 흥그러운 일이 따라서고 못된 악담질에는 상서롭지 못한 흉한 일만 겹쳐든다고 하였다.

최근년간 박근혜가 공개장소에 나타나 동족을 향해 제거름을 붙고 악의에 찬 망발을 줴쳐댄것만도 500여차에 달한다고 한다.

자기가 치마를 둘렀는지, 바지를 입었는지도 모르고 미국땅에 제바라간 기회에 펜타곤과 《조선전쟁기념공원》 등을 찾아다니며 화약내풍기는 폭언을 늘어놓아 코큰 사람들조차 아연케하고 지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자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땀흘리고있다.》, 《한미동맹》을지가 《이북을 제압하는 부전승전략을 위한 최상의 방책》이고 《흡수통일의 믿음직한 담보》라고 하여 미국피수가 흡족하여 입이 귀밑까지 째지게 하였다.

북침전쟁이라는 고얀에 불든 이 앵무새는 나중에는 미국의 힘을 빌어 《남북의 골리직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내놓고 줴쳐댔으며 새로 개발하였다는 탄도탄시험발사놀음에 낯짝을 들이밀고 《북 전 지역타격》을 떠들며 허세를 부리기도 하였다.

사실 박근혜는 제 상전에게서 언제 죽음을 선사받을지 모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집권 첫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미국을 위해 치마자락에 구멍이 숭숭 나도록 욕신을 다 바쳐왔지만 과렴치한 상전은 박근혜가 이제는 늙어빠진데다가 말음 또한 정확치 않다는 리유로 폐사시킬수 있기때문이다.

그것은 애비 박정희가 무려 18년간이나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겨왔으나 식민지통치에 지장이 된다고 관단되기 바쁘게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즉시 제거해버린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죽음을 선사받아도 주어진 운명을 피할수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것이 박근혜이다.

박근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떡하면 《도끼로 10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는 101번째만에는 쓰러지게 될것》이라고 잴잴거리군 하였다.

그것이 제 목대를 찍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모르고있다는데 박근혜의 비극이 있다.

이제 때가 되면 미국상전은 애비의 뒤를 이어 충실하게 재잘거려온 미국산 앵무새의 털을 하나하나 뽑아버리고 고압가마에 넣고 죽 익힌 다음 식탁우에 올려놓고 포크를 찔러댈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항간에서는 동물원 조류사의 앵무새는 그래도 《안녕하십니까.》하는 좋은 말을 하기때문에 애무를 받고있지만 사람가죽을 쓴 이 미국산 앵무새는 대결과 전쟁만 고취하여 온 민족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고 나중에는 제 명줄만이 아니라 온 겨레를 지옥의 불가마에 처넣을 악마이기때문에 당장 죽여버려야 한다고 욱욱대고있다.

무엇이 동족을 위하고 무엇이 이 나라를 욕되게 하는것인지도 모르는 천하얼간이가 바로 박근혜앵무새이다.

미국산 앵무새의 입부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행은 천법을 자초하였다.

온 겨레가 지난 시기에는 침을 뱉았다면 오늘에 와서는 우리 민족의 화근인 이 미국산 앵무새의 목을 비틀어 력사의 시궁창에 영영 처박으려고 팔을 걷어붙이였다.

천하역적 박근혜의 더러운 잠명이 한분한초 끝나가고있다.

동물원 조류사양공 김 은 경

동족대결과 파쑈독재를 일삼는 매국노들을 쓸어버리자

장송곡이 울리는 청와대의 말로를 본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발표 후 단 이틀동안 150여만명의 일군들, 근로청년, 학생들 조국보위에 한원!

활화산처럼 폭발한 참군열풍은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성전에 떨쳐나선 정의로운 인민의 강용한 기상이다. 적들의 극악무도한 발광에 온 나라에 격노의 폭풍이 몰아치고있다. 남장도적인 대조선《제재결의》니 뭐니 하며 우리의 조준경안으로 제발로 기신기신 제바라들어오는 원쑤들을 전률시킬 강위력한 주체탄, 통일탄이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푸른 하늘가에 격멸의 통쾌한 비행운을 새기였다.

동족압살헌혼증에 미친 괴뢰들이 미국을 등대고 극악무도한 《참수작전》실행의 사냥개로 나섰지만 어리석기 그지없다. 한갖 미국의 전쟁대포밥에 불과한 주구들이 비극적운명을 재촉하는 상전과 함께 신세망칠 도박판에 마주앉은것이다.

노호한 우리 천만군민은 세계가 알지 못하는 군사적잠재력을 동원하여 악의 근원을 송두리채 제거하기 위한 계단식소탕작전에 떨쳐나섰다. 여기에는 력사적으로 계승되여온 선군조선의 승리전통과 미국과 괴뢰들의 제배전통의 합법칙성과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의 필연성이 비껴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괴뢰들에게는 숙명으로 타고난 과멸법칙이 존재한다. 력대로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도전해나선 역적배들은 례외없이 상전과 함께 장송곡을 울리며 저승길을 갔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미국의 들도 없는 죄악을 한 괴승만역도의 운명이 그러하였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원자탄을 휘두르는 미국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하여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될것이라고 씨벌이며 《북벌》을 단행한 역도에게 차례진것은 너무도 쓰디쓴 고배였다. 전쟁을 도발하자마자 서울에서 쫓겨났고 대전에서는 인민군대의 신출귀몰한 로위전법에 녹아난 미제의 《상승사단》의 비참한 말로를 보았다. 아무리 눈을 비벼봐야 미24사단장 띈은 《상승장군》이 아니라 졸병옷을 입고 거지처럼 숨어다니며 생감자를 뜯어먹다가 나어린 인민군병사에게 덜미잡힌 초췌한 포로였다. 이것이 미국상전의 진짜놀음이였다. 미국의 《정예》부대들이란 인민군대앞에서는 하나같이 이런 허재비들이였고 《상승장군》들이란 《미국력사에 없는 무덤신화를 창조》한 《무덤장군》이 아니면 미8군사령관 워커와 같이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대상과 잘못된 전쟁을 하였다는 후회조차 남기지 못하고 저승길을 간 송장들이였다.

《전쟁개시에 있어서 조선전쟁처럼 완전히 준비하고있은적은 미국의 력사에서 처음》이라고 허세부리던 아메리카제국이 영웅적조선인민앞에 이렇게 죽탕이 되였다. 미국의 호언장담은 락망의 눈물로 변하였고 이런 상전에게 끌려다닌 북침총전 괴승만역도의 운명도 달리 질수 없었다.

미국이 짜준 《두개 조선》각본에 따라 7.4공동성명을 배신하고 조국통일3대원칙에 도전해나선 《유신》독재자의 종말도 비극적이였다. 《승공통일》을 부르짖으며 상전과 미친듯이 북침도발에 나섰지만 《경호함 56》호는 수장당하였고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승리한 우리 인민의 전리품으로 목이운채 참패의 증견물로 남았다. 《B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등 참담한 패배가 이어지는 속에 항복서만 섬겨바친 무맥한 미국과 동침하면서 《승공통일》의 개꿈을 꾼 대가로 《유신》독재자에게 차례진것은 가련한 비명횡사였다.

6.15통일시대의 극악한 원쑤 리명박역도는 우리가 핵이나 미싸일개발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미국과 함께 《북의 체제변화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떠들다가 호된 징벌을 받고 시대의 폐기품으로 처분되였다. 유사시 남조선에 미븐토가 공격당했을 때와 같이 핵 및 재래식공격수단을 총동원한 《핵화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허세에 얼리워 감히 《침무실창문을 통한 타격설》까지 내돌리며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치던 역도가 어떤 처참한 꼴을 당했는가. 우리의 경고를 새겨듣지 않은 무지와 경솔함때문에 연평도포격전의 무자비한 불세례에 혼쭤를 잡기며 청와대 지하방공호에 처박혀 《화전을 막으라.》고 비명을 올렸다. 그처럼 큰소리치던 상전은 만신창이 되도록 얻어맞는 주구를 강전너 불보듯 했다. 미국도 정화하고 단호하며 무자비한 우리의 징벌타격이 두려웠기때문이다. 《북급변사태》의 개꿈속을 헤매이며 민족의 대국상에 무엄한 칼질을 해댄 대역죄로 역도는 세상의 저주를 받고 산송장이 되였다.

친미에 명줄을 걸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넘보는 박근혜패당이 뵈리를 든 청와대가 악의 본산 백악관과 함께 없어지는것은 숙명이다.

죄와 벌은 한줄기에서 자란다. 북남관계가 파국의 수렁창에 빠져든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참수》라는 치떨리는 망발을 공공연히 제창하며 과멸을 부른 미치광이는 없었다.

대국역적 박근혜는 우리 민족의 공동재보인 핵억제력을 죄를 물고 헐뜯어대고 이 땅에 핵참화를 몰아올 미국상전의 핵전쟁살인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미제의 해외에서의 《참수작전경험》에 토대한 《제거작전》의 《현실성검토》니 뭐니 하고 너덜대고있다.

시집도 못 가보고 쭈그러든 늙다리 팡녀의 변태와 심술증, 피해망상증의 히스테리적발작이라고만 보기에는 역적이 지은 죄가 너무도 엄청나다.

박근혜역적패당은 더이상 이 땅에 살아숨쉴 자격을 상실하였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에 괴뢰집권자를 조소하는 《애비 따라하기》라는 신통한 글들이 실리고있다. 친미사대와 만고역적죄로 천법을 선고받은 박근혜패당에게 남은 일은 오직 하나 선임자들의 뒤를 따라 무덤에 처박히는것뿐이다.

백두산대국의 승리전통은 최후승리의 통장혼으로 빛날것이라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확신이고 락관이다.

우리의 원쑤격멸의 의지에는 자기 삶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는 최고수뇌부를 천점만점의 성벽이 되여 옹위하려는 충정의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준엄했던 전화의 나날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 군민의 억척같은 신념이 그대로 원쑤격멸의 불소나기가 되고 작렬하는 폭탄이 되여 원자탄을 휘두르는 미제를 타승하였다. 세계가 수소탄보다 더 위력한 핵폭탄이라고 경탄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은 곧 최고수뇌부결사옹위를 핵으로 하는 최강의 힘이다.

침략의 아성을 조준권안에 넣고있는 우리의 전략 및 전술타격수단들에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땅덩어리를 마음먹은대로 두들겨댈수 있는 물리적타격력과 함께 민족의 최고존엄과 자주권을 누구도 건드릴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와 강한 민족적자존심이 만장약되여있다.

때문에 우리의 타격은 피할수 없다. 괴뢰들이 함애비처럼 섬기는 미국에도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것이 불행이다.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타격앞에 미국과 괴뢰들이 할수 있는것은 시라소니처럼 맞고 너부러지는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조미대결의 력사에 종지부가 찍히고 조국통일만세소리가 천지를 진감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바뀔수 없는 력사의 합법칙성이다.

리 효 진

지랄만난 시골뜨기할미의 넋두리

민족의 재앙거리인 청와대의 할미광대 박근혜의 《3.1절기념식》연설에 온 겨레가 또다시 분노하고있다. 항일운동한암에 알장섰던 악명높은 일제침략군 《오까모도중위》의 후예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과 기상을 멸친 날에 천연스럽게 《기념식》연설이라는것을 한것지체가 어불성설인데다가 늘어놓은 수작 또한 하나부터 열까지 온통 동족을 모해하고 헐뜯는 극악무도한 망언들이기때문이다.

무는 말 아가리와 깨진 독 서슬같이 표독스러운 몰골을 한 박근혜는 민족자주권수호의 보검이며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인 우리의 핵억제력을 또다시 걸고들며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의 핵개발의지를 꺾지 못한다.》느니, 개성공업지구폐쇄 등의 《대북강경조치를 계속 밀고나가겠다.》느니 하고 독기를 내뿜었다. 반면에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웠고 오늘도 과거죄악을 부정하며 재침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오만무례한 일본반동들에 대해서는 혀꼭소리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해결》이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동족압살을 노린 대일공조를 위해 뒤 미려운 계집 국거리 썰듯 어물쩍 해치운 반민족적죄행을 또다시 정당화한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박근혜역도의 이번 《3.1절기념식》연설이라는것은 북남대화와 협력을 한사코 가로막고 외세에 민족의 리익을 팔고 팔아먹은 더러운 행적을 미화분식하며 저들의 범죄적인 반공화국대결망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시골뜨기할미의 지루한 넋두리이다.

질 닦아놓느니까 미친년이 먼저 지나간다고 반세기이상 겨레의 가슴속깊이 응어리졌던 한을 풀어내며 넓게 펼쳐졌던 북남화해와 협력의 길을 심술궂은 수탉처럼 모조리 파헤쳐놓고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한 6.15의 고귀한 전취물을 싹 말아먹은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 다름아닌 청와대의 미친 악녀이다.

못된 계집의 주둥이가 사기접시를 뒤집어놓는다고 박근혜가 짬만 있으면 내뱉은 대결악설은 좋아질번 하던 북남관계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하고 늙은 마귀의 분별없는 도발광기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사납게 몰아오군 하였다. 그런데도 역도는 사태의 모든 책임을 부정하고 우리를 무턱대고 걸고들며 저들의 대결추태를 한사코 정당화하려들었다.

이토록 허비락이 돌아가는대로 동족을 기껏 헐뜯고는 요사스럽게도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것》이라느니, 《3.1정신을 구현하는 시대적 가치》니 뭐니 하며 역스러운 타령을 한바탕 늘어놓은 년의 추태는 그야말로 조소를 자아낸다. 개구리 삼킨 뱀같이 노상 못못해가지고 그 누구의 말도 영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불통1인자》의 본색이야 이미 잘 알고있다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미친년 방아찧듯 다 꿰진 대결의 복통을 정신없이 두드려대는 역도의 몰골은 실로 가소롭다 못해 측은하기 그지없다.

사실상 《3.1절기념식》연설을 한답시고 제 추한 몰골 창피한줄도 모르고 쫄딱 나서서 갖은 악담질을 일삼은 역도의 망동은 우리의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기접한 정신병자의 가련한 지랄발광증외에 다른것은 아니다. 지금 박근혜패당은 선군의 기치밑에 자주의 성새, 정의의 보루로 위용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군력에 짓눌려 밤낮 간이 콩알만 해있어야 하는데다가 지적문에 돌찌귀같이 어울리지도 않던 《균형의교》놀음이 이번에 완전히 물지박산나 왕대끈 떨어진 창피한 신세가 되였다. 갈수록 험산이라고 외세를 등에 업고 아무리 모지름써도 위기만 심화되자 급해맞은 역적은 그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해 반공화국도발에 더욱 극성을 부리면서 최후발악을 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의 사타구니나 핥고 노린내나는 상전을 안고 돌아가는것을 락으로 여기는 더러운 창녀가 제아무리 지랄발광을 해도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을수 없고 선군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천만군민의 발걸음을 가로막을수 없다.

지랄병엔 묵침이 약이라고 박근혜같은 악녀의 대결발광증에는 무자비한 징벌의 불벼락이 제격이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외세의 더러운 주구가 되여 재앙을 몰아오는 반역무리야말로 한시바삐 제거해야 할 민족의 우환거리라는 교훈을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우리는 이미 괴뢰패당에게 알아들을만큼 경고를 하였다. 이제 남은것은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역적무리와의 최후결산뿐이다.

허 영 민

반전평화수호를 위한 굳센 의지

남조선에서 외세와 공조하여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괴뢰당국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고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7일 하루에만도 수차례 각계의 반《정부》투쟁이 벌어졌다.

이날 민가협량심수후원회가 주최하는 제28차 정기총회가 열리였다. 총회는 이 단체의 명예회장 권오헌의 말언으로 시작되였다. 그는 지금 우주에 수많은 인공지구위성이 떠다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의 위성발사권리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면서 유엔《제재결의》채택놀음에 매달린 당국의 처사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이어 연단에 나선 단체성원들은 지금까지 《통일대박》을 줴치던 박근혜가 북남관계를 《특수무대 군사작전하듯》 파국에 몰아넣는 무모한짓만 벌려놓고있다고 하면서 《〈북제재붕괴〉까지 언급하는 등 오만방자하기가 도수를 넘었다. 거짓말과 민중을 우롱하고 속이는 전술로 백성을 노리개로 삼고있다.》라고 분노를 표시하였다.

진보련대 공동대표 한충목은 박근혜가 박정희《유신정권》을 넘어 괴승만시대의 《멸공통일》을 부르짖으며 선제공격을 떠들고있는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이야말로 《굴욕적인 야합》이라고 까밝혔다.

참가자들은 《이 땅의 주인들은 박근혜〈정권〉이 아니라 우리들이다.》, 《우리는 6.15공동선언파 10.4선언의 리행을 거부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에 몰아넣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죄규탄하고 반전평화수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라고 웨치면서 기세를 올리였다.

그들은 미국과 독재《정권》의 붕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자주통일의 세상이 밝아오고있다고 하면서 민주, 진보, 평화통일세력의 단합으로 외세를 물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려는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서울광장에서도 각계층 시민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련맹,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제4차 민중총궐기집회를 열고 《박근혜독재 심판하자》, 《전쟁반대,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집회와 행진을 벌리였다.

서울 세종로공원에서는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반전평화집회를 열고 《전쟁연습 중단!》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본화구를 찾는 용암마냥 날을 따라 고조되고있는 남조선 각계의 투쟁기세는 멸망을 앞둔 반역패당을 더욱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장 입 향

괴뢰패당의 반동통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추악한 매국역적의 집권 3년간 죄악을 고발한다(3)

온 남녘땅을 인간생지옥으로 만든 《산당집녀주인》

박근혜가 신통히도 표지의 봉분을 련상케 하는 푸른 기와를 씌운 청와대의 대문에 들어선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전이였다. 당시 《대통령》선거결과에 대해 제름직해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억도를 찍은 그 손으로 자기들의 피눈물을 닦아내게 되리라고까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박근혜가 사상 류례없는 반인민적악정으로 온 남조선땅을 사람 못살 생지옥으로 만든것은 집권 3년간 지지른 용납 못할 죄악들중의 하나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초보적인 품격과 자질도 갖추지 못한 촌뜨기에 불과하다. 역도가 머리에 든것이 없고 주견도 없다나니 남이 써주는것을 앵무새처럼 줄줄 외워대여 《수첩공주》로 불리운것은 록로된 사실이다. 워낙 무식하고 애비, 에미교양도 없이 자라서인지 사고 또한 아둔하고 언행도 경망스럽기 그지없다. 《문민》의 탈을 썼던 김영삼이가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에 뛰어든 박근혜를 《철문이》라고 놀려댔었도 단순히 정치적암투속에서 우연히 흘린 말이 아니라 그의 위약성을 알짬아본것이라고 할수 있다.

사실 박근혜로서는 정치무대가 아니라 어느 골방에 들어박혀 신세타령이나 하면서 고독하게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하직하는편이 더 나았을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처럼 민심의 끝없는 저주를 받는 신세는 면했을수도 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야심과 탐욕이 굴뚝같은 역도는 장권과 권모술수에 의한 선거쿠데타로 《대통령》직을 강탈하였다. 야만적인 총칼독재통치로 남조선사회전체를 무고한 인민들의 피바다로,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던 군사깡패의 종자가 근로인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현실적으로 박근혜는 집권 6개월도 되기 전에 경제, 민생관련공약 200여개중 절반에 달하는 공약들을 파기하거나 리행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인민들로부터 《롱약뒤집기명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술에 취한 놈 발고랑 넘어가는 식의 역도의 마구잡이정치는 남조선사회전반을 순식간에 총체적인 파국에로 몰아넣었다. 남조선의 외세의존형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인민생활은 도탄에 빠졌다. 실업자들이 거리와 골목에 차넘치고 모진 생활난을 못이겨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 남조선은 자살률에서 망신스러운 세계 첫자리를 기록하였다. 박근혜가 집권하여 1년도 안되는 사이에 다정한 인사말인 《안녕하십니까.》가 당국을 규탄하는 욕행으로 된것은 보수패당의 전횡으로 각계각층의 수많은 근로인민들이 편안하지 못하고 절망과 비관, 원한과 분노속에 날파 달을 보내야 하는 남조선의 혈악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있다.

지난 2014년 4월 남조선에서 일어난 《세월》호침몰사고는 천재가 아니라 반역정책으로 악명떨치는 박근혜패당이 빚어낸 인재였다. 수백명의 아이들이 차디찬 바다물속에서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들이 모두 골절되도록 배전을 허비며 죽어갈 때 《얼음공주》는 청와대를 7시간동안이나 비워놓고 제볼잠만 보았다. 그후에 나타나서는 《승객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가.》라는 황청같은 말언을 하여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는가 하면 불행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하는 일은 언쟁개치고 비루먹은 암개같이 다 늙어빠진 주제에 대양건너의 미국상전을 끌어들여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할것, 못할것 가리지 않아 만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집권자부터가 이런 천하의 제몰패덕한이니 그 수하들개들도 별의별 해괴한 추태를 다 부려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구조현장에 기신기신 나타난 괴뢰당국자들은 피해자유가족들의 슬픔은 전혀 아랑곳없이 사망자명단앞에서 기념촬영을 시도하였는가 하면 의자우에 놓여있는 구급약품들을 밀어내치고 그 자리에 앉아 즉석국수를 게걸스레 처먹어대면서 그들의 찢어진 가슴에 소금을 뿌려댔다.

박근혜일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온갖 불행과 재난이 끊기지 않았다. 지난해 년초부터 각종 참사들이 련이어 터져나오는 속에 《메르스》라고 불리우는 호흡기성전염병이 남조선전역을 무섭게 휩쓸어 인민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남의 염병이 제고뿔만 못하다는 식으로 보수집권세력은 전염병관리를 보건복지부와 일부 병원들에만 떠넘기고 저들은 추악한 권력싸움만 벌렸다. 박근혜역도는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서 환자수와 관련하여 왕청같은 수작을 늘어놓고는 그 무슨 개막식참가를 구실로 전라남도로 나들이를 떠나다 못해 나중에는 미국으로 몸을 사리려고까지 하였다. 괴뢰집권세력의 이런 망동이 인민들에게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무능력한데다가 무책임하기짝이 없고 반인민적악정만을 업으로 삼는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있는 한 자기들의 눈에서 피눈물 마를 날이 없으리라는 각계의 위구심이 공연한것이 아니었다는것은 그해 9월에 있은 남서관광선 《돌고래》호의 전복사고를 통하여 또다시 증명되였다. 뻔히 살릴수 있었던 승선인원 20여명중 10명이 죽고 8명이 실종되였다. 현 괴뢰당국의 출현이후 꼬리를 물고 일어난 특대형불상사들이야말로 박근혜역도의 정치 아닌 반인민적인 망치가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어디 그뿐인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량극화가 심화되고있는 속에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생을 포기하고있다. 결국 무지한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잘못 뽑은탓에 무고한 사람들이 생죽음의 벼랑턱으로 떠밀리우고있는것이다.

청와대의 인망에 땜치럼 또아리를 틀고앉아 불파 3년만에 온 남조선을 근로인민대중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든 역도에게 《산당집녀주인》이라는 락인이 찍힌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두꺼비는 비오는데 아무리 앉아있어도 매근해지지 않는법이다. 시리에 어둡고 어리석으며 무능한 박근혜역도가 더 큰 재난을 몰아오기 전에 하루빨리 그에게 퇴임이라는 사약을 내려야 한다.

본사기자 심 철 영

ㄱ-61036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6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